



'삶-이야기'

### 실루엣, 수줍은 노출

무등갤러리 김현우전...23~29일

서양화가 김현우씨가 23일부터 29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실루엣 빛을 향하여'를 주제로 첫번째 개인전을 연다.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 사계에 걸친 남도의 산하와 정서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김씨는 남도를 여행하면서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낀 이야기들을 서정적인 감성으로 캔버스에 녹였다. '벗길 걸으며' 등 작품에서는 자연이 생동하면서 피어나는 생명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 '한적한 오후' '숲 속 이야기' 작품에서는 푸르름 가득한 여름을 만날 수 있다. '삶-이야기' 연작이 눈에 띈다. 잊혀가는 골목길과 다닥다닥 붙어 있는 양철지붕의 모습이 웬지 쓸쓸하지만 지난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고, 앞으로를 생각하게 한다. 김씨는 전남미술대전과 세계평화미술대전에서 입선했다. 한국·베트남 수교 20주년 기념전, 제28회 대구·광주·부산·전북 미술교류전 등 단체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236-2520. /김정민기자 kki@

### 광주여성필 25일 정기연주회

광산문화회관...김영언 지휘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총감독 김유정) 정기연주회가 25일 오후 5시30분 광산문화회관에서 열린다. 2014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 지원사업 선정과 함께 진행중인 '투게더 판다

니 콘서트' 4번째 시리즈다. 김영언 광주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 이번 연주회는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으로 문을 연다. 또 피아니스트 이상록(스클라비아·We-us 앙상블 음악감독)씨가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협주곡 2번'을 협연하며 소프라노 김애령(목포대 교수)씨는 김동환의 '그리운 마음'을 들려준다. 예술 꿈나무들의 무대도 마련됐다. 남하승(운리초 3년)양이 모차르트 '바이올린협주곡 D장조 1악장'을, 김예린(신가중 2년)양이 호프마이스터의 '비올라협주곡 D장조 1악장'을 들려준다. 박정원(수원중 3년)은 엠마누엘 세주르네의 '마립바와 현을 위한 협주곡 2악장'을 연주한다. 피날레 곡은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핀란드'이다. 문의 062-960-89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삶과 밀착된 시민들의 저돌적 질문서 많이 배우죠”

'인문지행' 이끄는 박해용·심옥숙 부부 인문학자

니체·플라톤 함께 공부...생활 속 인문학 추구

미술·음악·심리학 등 '장르 초월' 속깊은 대화

26일 광주극장서 '우피치 미술관' 무료 강연

인문학 모임 '인문지행'은 매주 한 차례 광주시 북구 태봉로에 마련한 작은 연구 공간에서 공부한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월), 플라톤의 '국가'(목),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금)가 텍스트다. '진득하게' 공부하고 싶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이는 인문학자 박해용·심옥숙 부부와 정의석씨다. 최근 클래식 음악감상실 '베토벤'에서 박씨 부부를 만나 요즘 대세가 된 인문학이야기를 나눴다. 전남대와 숭실대 등에서 강의 하는 두 사람은 "질문이 거의 없는 학생들에게 비해 삶과 밀착된 저돌적인 질문을 하는 시민들과 공부하면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했다.

'인문지행'의 시작은 지난해 지역 인문학자들의 모임 '무등지성'이 진행했던 시민 강좌다. 당시 강의를 들었던 이들이 더 깊은 공부를 하길 원했고 철학(박해용), 독문학(심옥숙), 심리학(정의석)을 주제로 학습이 시작됐다. 일회성 인문학을 지양하고, 세미나 형식으로 공부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인문지행'은 함께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작업을 진행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 공동체다. "인문학이 대중성은 확보했지만 일상과 연결되는 통합적 감각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아 아쉽죠. 지식으로서 인문학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생활에 밀착된 인문학을 지향해요. 단순히 강의를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인문학이 행위로 까지 이어지는 순환작용을 추구합니다."(심옥숙) 목포 출신인 박씨는 국내에서 석사까지 마치고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현대 독일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남원 출신인 심씨 역시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문예철학과 독일 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두 사람은 15년간 독일에 머물렀다. 두 사람이 강단 강의와 더불어 길 위에서 시민들을 만나기 시작한 건 7년 전이다. 초창기 대중과의 만남은 전남대 철학과 연구교육센터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강좌였다.

"기관의 힘이 아닌, 시민의 자발성이 바로 인문정신을 키우는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읽고 토론하다 보면 혼자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지난해에 8주에 걸쳐 읽었던 스피노자의 '에티카'는 저 혼자 읽으려다 중도 포기했던 텍스트예요. 함께 읽으며 완주할 수 있었죠.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사람의 참모습을 알아가는 거죠."(박해용) 부부와 함께 공부를 하는 이들은 인문학에 관심이 많아 일부러 서울까



'인문지행'에서 시민들과 인문학을 공부하는 박해용·심옥숙 부부.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 가거나 인터넷 강좌를 듣는 등 어디선가 꾸준히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다. "강단에 있을 때는 뭔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데 반해 시민들과 공부하면서 함께 배워가며 주고 받는 게 진짜 인문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깊이있는 공부 오히려 가능하거든요. 대부분 질문의 방향과 문제의식이 뚜렷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현대인의 파편화된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박해용) '인문지행'은 텍스트를 함께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음악, 미술 등과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고 싶 속으로도 뛰어든다. 최근에는 광주비엔날레를 함께 관람한 후 이야기를 나눴다. 슈트라우

스의 오페라 '장미의 기사'를 함께 보는 등 메가박스의 오페라 관람도 함께한다. 5일장을 찾아가서 삶과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바그너의 음악을 빼고 니체를 이야기하기 어렵죠. 토마스 만의 작품에도 역시 베토벤의 작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생활인문학'이예요. 닫힌 공간에서 벗어나 생활 속에서 연결고리를 찾는 거죠. 개념 안에 갇혀버린 인문학은 의미가 없어요. 어렵고 추상적인 인문학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삶에서 나온 질문들, 살아 있는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인문학을 관공놀이 가듯 즐기는 듯한 분위기에는 회의적이었죠. 강단에서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개념 몇개가 인문학일 수는 없죠. 자신

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걸 주저하지 않아 합니다."(심옥숙) 지난 여름 이탈리아 피렌체에 잠시 머문 두 사람은 피렌체에서 시작된 인문정신과 그 의미를 그림을 통해 나누는 특별 강좌를 준비중이다. 오는 26일 오후 2시 광주극장에서 '인간의 탄생, 그 현장에 스며들다 I-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을 중심으로'를 진행한다. 강의는 11월 16일 한차례 더 열리며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심씨와 인문지행에서 함께 공부하는 미술 전공자 장근영씨가 함께 한다. 수강은 회원제로 진행되며 일반 3만원, 학생 2만원이다. http://cafe.daum.net/h-arete. 문의 010-5205-56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코믹한 삼색 사랑, 웃을 수 만은 없다

아트 컴퍼니 원 뮤지컬 '서칭 포 러브'...24일~11월 2일 동산아트홀

'세 가지 색, 사랑 이야기.' 아트 컴퍼니 원이 로맨틱 코믹 뮤지컬 '서칭 포 러브'(사진)를 공연한다. 24일~11월2일(영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3시·7시, 일요일 오후 3시) 동산아트홀. 두번째 사랑은 딱 헤어지기 좋은 3년 차인 커플의 이야기다. 사업 실패 후 백수로 살아가는 남자친구와 3년째 연애중인 학교 여선생이 주인공이다. 마지막 사랑은 교생 실습중인 여

선생과 제자인 고등학생의 묘한 감정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광산문화회관에서 초연된 작품으로 멀티남·멀티녀의 연기가 웃음을 더한다. '바위섬' 등을 만든 배창희(남부대 교수)씨와 김민정씨 등이 음악을 작곡했으며 김민정·이정진·김성관씨 등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은 3만원.(다양한 할인 혜택) 문의 062-360-8437. /김미은기자 mekim@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영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남	초혼	추천 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트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